가정의 달 관광객 더 온다… 방역 '비상'

지난 4월 한달에만 100만명 이상 제주 찾아
5월 각종 기념일·행사 예정… 긴장감 고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겹치면서 만남과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106만98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2258명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지역에 월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113만3095명)과 10월(107만8243명), 11월(114만3700명), 올해 4월 등 4차례 뿐이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가정의 달인 5월에도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예정돼 있어 방역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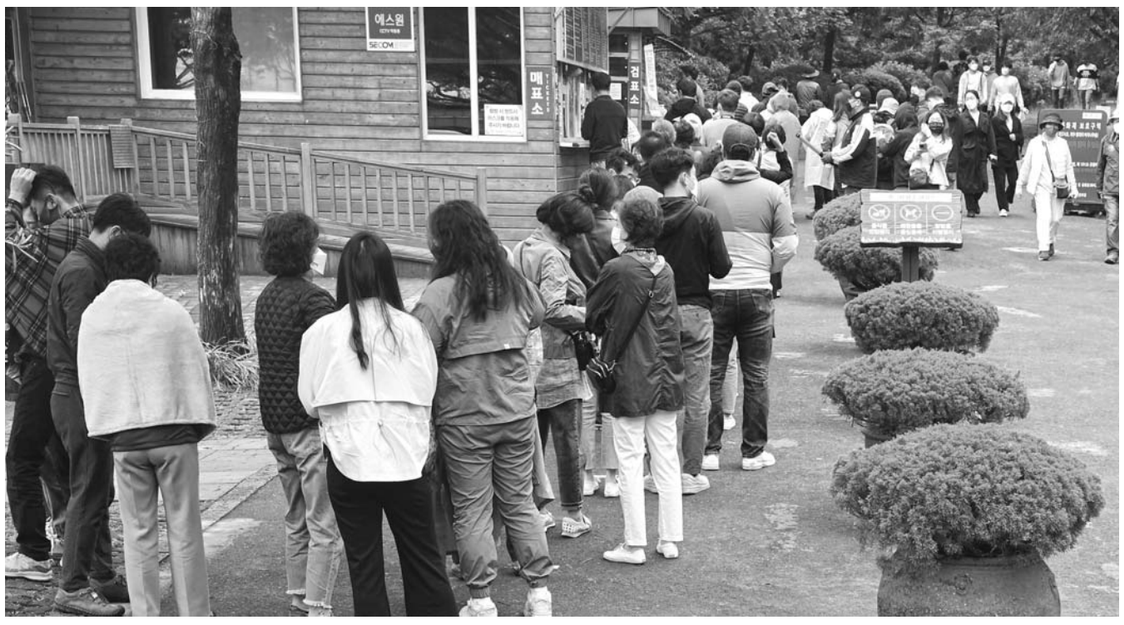
더욱이 제주지역에서는 관광객 확진자 또는 타지역을 방문한 도민에 의한 n차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지난달 8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71.2%에 해당하는 62명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무증상 전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개인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은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부 이탈만으로도 방역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탐방을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역 산업활동 회복세

3월 산업생산 1.5% 증가
광공업 2.6%·소비 3.5%↑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기를 걷던 제주지역 산업활동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1년 3월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도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1.5%, 전월대비 0.4%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전월동월대비 5.8%, 비금속광물(아스콘, 레미콘, 콘크리트벽돌 및 블럭) 16.4%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가공해조류, 육지동물포장육, 치즈)이 전월동월대비 31.4%가 감소하고, 화학제품(유기질비료)과 음료(소주, 생수, 혼합음료)는 각각 16.5%, 1.1% 줄었다. 전자부품(D램) 생산은 82.8% 늘었다.

출하는 전년동월에 견줘 2.6% 늘었다. 전자부품(D램, S램)이 전년동월 대비 62.1% 증가하고, 비금속광물과 전기가스업은 각각 15.3%, 6.2% 늘었다. 반면 식료품(-61.1%)과 화학제품(-17.9%) 음료(-1.1%) 등은 감소했다.

광공업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45.5%), 비금속광물(-18.3%)은 감소했으나, 음료(104.6%), 전자부품(270.0%), 화학제품(84.4%) 등의 재고는 늘었다.

3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6.7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다. 화장품, 음식료품은 감소하고 의복, 신발·가방,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기타상품은 증가했다. 이태윤기자

기름값 하락 '찔끔 찔끔'… 3주 연속 보합세

제주 6주째 전국 최고가

제주지역 기름값이 6주 연속 전국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ℓ당 1543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휘발유 가격은 4월 들어 둘째주부터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하락폭은 0.2원에서 0.6원, 0.3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월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서울보다 50원 넘게 낮았는데, 3월 마지막 주 역전돼 6주 연속 전국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2일 기준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제주로 ℓ당 평균 1619.43원이다. 전국 평균(1534.21원)보다 무려 85원 이상 높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ℓ당 평균 1613.81원이다. 이날 제주지역 휘발유 최저 가격은 ℓ당 1580원, 최고 가격은 1660원 이다.

한편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인도·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 추세 등의 하락요인 영향으로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로또복권 <제961회>

당첨번호	11, 20, 29, 31, 33, 42
2 등 보너스숫자	43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주)광원	김정준	2008년 5월 3일
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	김철용	1993년 5월 4일
휴애리(주)	양지선	2007년 5월 5일
제주신협 노형지점	문애실	2013년 5월 6일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23)

"최고의 소고기로 외식 문화 선도"

▶(주)광원=3일 창립 13주년을 맞는 (주)광원(대표 김정준·사진)은 일본산 믿고 먹을 수 있는 '와규(和牛)'와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소고기 전문점이다. 한라수목원 인근에 위치한 (주)광원은 이국적인 외관과 정원, 4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김정준 대표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할 것"이라며 "세계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고기 전문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744-1000.

"노형 상권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오는 4일 개점 28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센터장 김철용·사진)는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노형상권의 다양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부문과 리테일 부문으로 업무를 세분화한 금융센터로 지역내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김철용 센터장은 "고객과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744-2111.

"수국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휴애리(주)=오는 5일 창립 14주년을 맞는 휴애리(주)(대표이사 양지선·사진)는 '사랑과 휴식이 있는 공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아름다운 자연 생활 공원으로 매해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매화 축제와 수국 축제, 동백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주민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양지선 대표이사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32-2114.

"협동·상생 지역금융기관 역할 충실"

▶제주신협 노형지점=오는 6일 개점 8주년을 맞는 제주신협 노형지점(지점장 문애실·사진)은 지난해 자산 3200억원을 달성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화로 신협 온(ON)뱅크 및 신협 오픈뱅킹 서비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조합원들의 취약한 금융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애실 지점장은 "협동과 상생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든든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45-5103. 이태윤기자